

[훈련도감]

훈련도감	[현대]	1. 나희덕 <못 위의 잠>
	Q 1-1	<u>아버지가 아비제비처럼 진짜로 꾸벅거린 거라면 비유가 아니지 않나요?(p.11 3-㉟)</u>
	A 1-1	<못 위의 잠>에서는 <u>‘못 하나 위에서 견디는 것으로 살아온 아비’는 화자의 ‘아버지’를 표현</u>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u>사람인 아버지는 실제로 ‘못 하나 위’에서 견디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u> 그러므로 ‘못 하나 위에서 견디는’은 <u>아버지의 상황을 ‘못 위에’ 있는 제비의 상황에 빗댄 비유적 표현</u> 인 것입니다. 또한 시의 초반에 나오는 등지 옆 못에서 꾸벅거리는 것은 화자의 아버지가 아니라 ‘아비제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u>보조 관념인 ‘아비제비’에 원관념인 ‘아버지’를 비유한 표현이 사용</u>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1-2	아비제비가 사내(아버지)를 다르게 표현한 비유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꾸벅거림’은 왜 아버지를 아비제비에 비유한 표현이 되는 건가요? 어느 쪽이 맞는 것인지 헛갈립니다. (p.10)
	A 1-2	강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선생님께서 ‘아비제비가 사내를 다르게 표현한 비유라고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못 위의 잠>이라는 시의 1행부터 13행(반쪽 난 달빛은 또 얼마나 창백했ند가요)까지의 내용만을 놓고 보았을 때 그러하다고 설명하신 것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 초반부를 보면, ‘못 위에 앉아 밤새 꾸벅거리는’ 아비제비가 등장하는데, 이는 화자가 ‘실제로’ 바라보고 있는 대상입니다. 화자는 아비제비의 모습을 보면서 과거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므로, 이때의 제비는 화자로 하여금 아버지를 떠올리게 만드는 ‘연상의 매개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유적 표현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시의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한다면, ‘늘 한 걸음 늦게 따라오던 아버지의 그림자 / 그 꾸벅거림을 기억나게 하는 / 못 하나, 그 위의 잠’이라는 마지막 구절에서 아버지를 아비제비에 비유한 표현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꾸벅거리는 것은 제비이지만, 이를 마치 아버지가 꾸벅거리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Q1-3	<u>‘반쪽 난 달빛’을 아내의 창백함을 보고 창백해진 사내를 의미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p.10)</u>
	A1-3	<u>국어 시험에서 문학은 수험생의 개별적인 감상을 묻는 것이 아니라, 평가원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감상을 하고 그 감상의 타당성을 묻는 것</u>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선지를 판단할 때에는 자신의 감상을 기준으로 엄격히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근거나 맥락을 보니 이런 해석도 가능하겠군.’과 같이 접근하는 자세가 도움이 됩니다. 즉, 감상의 범위를 넓게 허용을 하되, 지문과의 내용 일치나 감상 방향 자체가 잘못되는 것은 오답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시만 읽고 ‘반쪽 난 달빛’을 사내가 창백해진 얼굴로 해석을 할 수

	<p>있는 것은 문학적인 능력이 뛰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능에서는 ‘반쪽 난 달빛’만을 던져주고 해석하라고 요구하진 않지요. 문제의 선지는 ‘반쪽 난 달빛’은 아내의 얼굴을 보고 창백해진 사내를 비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된 선지를 가지고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용 일치의 확인, 맥락을 통한 방향 확인 등을 통해 판단하시면 됩니다.</p> <p>‘피곤에 지친 한 여자가 내리고, 그 창백함 때문에’라고 표현된 맥락을 잘 살펴봅시다. 여기서 ‘그’는 앞서 언급한 ‘피곤에 지친 한 여자’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u>‘그 창백함’은 ‘여자의 창백함’</u>이라고 볼 수 있지요.</p> <p>이어지는 <u>‘반쪽 난 달빛은 또 얼마나 창백했던가요’라는 부분에서 ‘반쪽 난 달빛’은 ‘여자의 창백함’ 때문에 ‘창백’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u> 자연물이라면 사람의 창백한 모습 때문에 창백해진다고 볼 수 없지요. 따라서 <u>‘반쪽 난 달빛’은 자연물이라기보다는 비유적 표현으로써 가장인 자신 대신에 힘든 일을 하고 퇴근하는 아내의 모습을 본 남편(아버지)의 모습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u></p>
Q1-4	<p><u>‘그럴듯한 집 한 채’가 어떻게 지향의 대상인가요? (p.11, 4-④)</u></p>
A1-4	<p>‘그럴듯한 집 한 채’는 제비가 못 하나 위에서 건디듯 살아온 ‘사내’의 상황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내’가 아이 셋과 함께 아내를 기다리면서 ‘실업의 호주머니’에서 때 문은 호두알을 만졌다는 것으로 보아, ‘사내’는 실직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좁은 골목에서 한 걸음 늦게 따라오는 사내의 모습을 화자는 ‘못 하나 위에서 건디는 것’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p> <p>이를 모두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u>‘사내’는 실직 상태이며 ‘그럴듯한 집 한 채’를 마련할 수 없어서 ‘못 하나 위에서 건디듯’ 살아가는 것입니다.</u> 그러한 <u>‘사내’에게 ‘집’은 지향하는 삶(가족 모두가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상징하는 공간</u>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안하게 못 위에서 자는 것처럼 불안정한 삶보다는 집에서 자는 것처럼 안정된 삶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④번은 적절한 설명의 선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p>
[현대]	<p>2. 백석 &lt;여승&gt;</p>
Q2	<p><u>‘산꿍’은 왜 ‘나의 감정 이입’이 되는 것인가요? (p.10)</u></p>
A2	<p>1연의 ‘불경처럼 서러워졌다’는 ‘나’가 ‘여승’을 보고 느낀 감정입니다.</p> <p>마지막 연을 보면, 여인이 삶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여승이 되는 날</p>

	<p>에 ‘산땡 설게 올은 슬픈 날’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땡’은 여인의 서러움,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시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u>화자인 ‘나’는 ‘여승’이 된 여인의 삶을 알기 때문에 ‘서러워졌다’라고 표현한 것</u>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p> <p>즉 <u>‘산땡’의 서러움은 직접적으로는 ‘여인’의 서러움이지만, 이런 여인의 서러움을 알고 함께 ‘서러움’을 느끼는 ‘나’의 감정도</u>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땡’에는 화자 자신의 감정이 이입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p>
	<p>[현대] 3. 최두석 &lt;노래와 이야기&gt;</p>
Q 3-1	<p>3번 문제 ⑤번에서 ‘덧난 상처를 이야기로 ‘치유한다면’이라고 말하는 데, 이는 ‘~면’이 가정의 문장이니까 사실관계가 맞지 않으므로 틀렸다고 볼 수 있나요? (p.13 3-⑤)</p>
A 3-1	<p>‘걱정의 상처는 노래에 쉬이 덧나 / 다스리는 처방은 이야기일 뿐’이라는 부분은 걱정의 상태에서 나타나는 상처는 노래에 쉽게 덧나지만 이는 이야기로 치유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선지의 ‘덧난 상처를 이야기로 치유한다면’이라는 부분은 이러한 사실의 시의 [E] 부분에 나타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진술한 것이지, ‘진짜 치유되는지 여부는 모르지만 일단 가정해 보았다.’는 의미에서 서술된 것이 아니므로 사실 관계의 측면에서 적절합니다.</p> <p>따라서 <u>상처가 이야기로 치유되는 것은 맞지만 ‘노래’는 상처의 원인이 아닌, 상처를 심화시키는 요인</u>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상처의 원인은 노래에 있다는 뜻’이라는 부분이 본문의 내용과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됩니다.</p>
Q 3-2	<p><u>시와 음악의 분리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왜 비판적이라고 볼 수 없나요?</u> (p.13 3-③)</p>
A 3-2	<p>비판은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함’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C]가 비판이 되기 위해서는 ‘정간보가 오선지로 바뀌고 / 이제 아무도 시집에 악보를 그리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옳고 그름을 논하거나, 잘못된 점에 대해 지적을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p> <p>[C]에서는 시집에 악보를 그리지 않는 현상(현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뿐, <u>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u> 따라서 시와 음악의 분리를 비판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p> <p>화자의 소망을 통해서 <u>시와 음악이 결합되는 것이 긍정적</u>이라는 것을 알 수는 있지만, 시와 음악이 분리된 것이 그와 대비되는 부정적인 것이라고 해서 ‘비판적 대상’이 된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p>
	<p>[현대] 4. 강은교 &lt;우리가 물이 되어&gt;</p>
Q 4-1	<p><u>‘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u>는 화자가 현실에서 벗어나 자연과 하나가 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는 선지에서 <u>‘현실에서 벗어나 자연과 하나가’라는 부분이 왜 적절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u> (p.14, 4-④)</p>
A	<p><u>‘현실에서 벗어나 자연과 하나가’ 된다는 말은 쉽게 말해 자연친화</u></p>

4-1	<p><u>적 태도</u>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라는 구절에서 <u>화자가 나무와 ‘함께’ 서 있다고 표현되어</u>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를 <u>자연과 하나가 되고 싶은 마음을 보여 주는 부분</u>인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p> <p>다만, <u>‘현실에서 벗어나’라는 진술은 작품의 내용과 맞지 않는 측면</u>이 있기 때문에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는 건강한 생명력을 갖고, ‘우르르 비 오는 소리로’ 흘러 현실의 메마름을 해소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인식을 보여 주는 구절로 보아야 적절한 것입니다.</p>
Q 4-2	<p>작품 속에서 <u>‘불’은 ‘전쟁’을 의미</u>하나요? (p.14)</p>
A 4-2	<p>&lt;우리가 물이 되어&gt;에서 ‘불’을 전쟁이라고 한정지어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u>‘불’은 ‘물’과 대립되는 의미의 시어</u>인데, 이 시에서 <u>‘물’은 생명력, 합일 등을 의미</u>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응되는 <u>‘불’은 파괴, 죽음, 소멸과 같은 추상적인 의미를 상징</u>합니다.</p> <p>작품의 내용상 시적 상황이 전쟁이라고 볼 근거는 없으며 따라서 ‘불’을 전쟁이라고 한정지어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 시는 <u>황폐한 현재의 삶에서 벗어나 생명력이 충만하고 조화로운 합일 세계로 가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낸 추상적 의미의 시</u>라고 보면 되겠습니다.</p>
[현대]	<p>5. 광재구 &lt;사평역에서&gt;</p>
Q5	<p>‘한 줌의’라는 표현 때문에 과거의 추억이 소박한 것인가요? (p.19 4-④)</p>
A5	<p>‘한 줌의 눈물’은 한 줌의 눈물을 흘림으로써 고단한 현재를 견디고 위로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u>힘든 상황에 놓인 자신을 위로하는 것이 화려하거나 대단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추억과 같은 소박한 것들</u>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 소박함이 과거의 추억과 한 줌의 눈물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p>
[현대]	<p>6. 이수익 &lt;결빙의 아버지&gt;</p>
Q6	<p>‘팡 팡 얼어붙은 잔등으로 아버지, 아버지’ 부분에서 <u>아버지가 추운 날 나를 위해 희생하다가 동사하신 것이라고 추측</u>할 수 있지 않을까요? (p.11, 5-④)</p>
A6	<p>3연에서 ‘나’는 영하의 한강교를 지나면서 과거에 자신을 품에 안고 추위를 막아 주셨던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습니다.</p> <p>화자는 그 때의 그 모습을 ‘팡 팡 얼어붙은 잔등으로 혹한을 막으며 / 하얗게 얼음으로 엮드려 있던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p> <p>이는 <u>아버지의 죽음을 표상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는 추위를 막기 위해 자신의 잔등으로 혹한을 막으며 얼음처럼 엮드려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표현한 것</u>입니다. 즉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한 모습이므로, 화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p>
[현대]	<p>7. 김동명 &lt;파초&gt;</p>
Q7	<p><u>화자는 파초에게 있어서 모성적인 존재</u>라고 할 수 있나요? (p.12 2-③)</p>
A7	<p>‘모성적 존재’란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보살필 때와 같이 무</p>

	<p>조건적인 사랑과 희생을 베푸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시의 마지막 문장인 ‘너의 그 드리운 치맛자락으로 우리의 겨울을 가리우자.’에서, 화자는 치맛자락으로 ‘우리’의 ‘겨울’을 ‘가리우자’고 말하고 있습니다.</p> <p>이는 함께 ‘겨울’이라는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자고 하는 것이지 파초를 ‘겨울’에게서 감싸주고 지켜주며 자신을 희생하려는 태도가 드러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b>화자가 파초를 돌보고 있는 것은 맞으나 모성적인 존재라고까지는 보기 어렵습니다.</b></p>
[현대]	8. 한용운 <님의 침묵>
Q8	<b>‘제 곡조를 이기지 못한’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p.25 10-①)</b>
A8	<p>‘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에서 화자가님과 이별한 상황에서도 여전히님을 위한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 곡조를 못 이기는’은님을 향한 화자의 사랑이 노래로 담아내면 넘쳐 흐를 정도로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지요.</p> <p>따라서 이는 <b>흘러넘칠 만큼 커다란 화자의 사랑이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돈다고 표현하면서, 님이 부재하고 있는 슬픈 상황을 사랑으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의미</b>를 담고 있는 구절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p>
[현대]	9. 박두진 <향현>
Q9	<b>왜 ‘고뇌’가 느껴지나요? <u>고뇌는 괴로움이 나타나야 되는 것</u> 아닌가요? (p.14)</b>
A9	<p>작품에서 ‘아! 괴롭다’와 같이 ‘고뇌’를 드러내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표현될 수도 있지만, <b>현재의 상황이 화자가 원하는 상황이 아닐 때</b>도 ‘고뇌가 느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b>무엇인가 바란다는 것은 화자가 처한 현재의 상황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b>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b>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한 고뇌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 것</b>입니다.</p> <p>박두진의 &lt;향현&gt;에서는 화자가 ‘산’의 침묵을 지루하다고 여기며 <b>자신이 바라는 상황에 대한 기다림</b>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lt;향현&gt;에서도 화자의 ‘고뇌’가 느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p>
[현대]	10. 오장환 <고향 앞에서>
Q 10-1	<b>‘손이 따뜻하다’는 것을 어떻게 <u>친근감</u>으로 연결시킬 수 있나요? (p.22 4-①)</b>
A 10-1	<p>화자는 고향을 그리워하며 고향 가까운 나룻가에서 서성거립니다. 그러다가 지나가는 행인의 손을 쥐면 그 행인의 손이 따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요.</p> <p><b>화자가 지나가는 행인의 손을 잡는 것은 친근감을 표시하는 것</b>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 손을 뿌리치지 않고 <b>화자에게 ‘따스함’을 준다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 역시 화자에게 친근감을 주는 것</b>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따뜻하다는 것은 물리적인 따뜻함이 아니라 ‘감정, 태도, 분위기 따위가 정답고 포근하다.’는 의미로서의 따뜻함이라는 점 참고해 주세요!</p> <p>따라서 <b>화자가 낯선 행인에게 ‘자신이 잡은 행인의 손이 따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행인에게 친근감을 기대하는 것</b>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p>

Q 10-2	화자가 '고향 근처 주막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데, <u>실제로 화자가 고향 근처의 주막에 머물고 있는지 어떻게 아나요? 단순히 고향 근처의 주막에 들러도 함께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고 한탄하는 것 아닌가요? (p.23, 6-㉔)</u>
A 10-2	화자는 '고향 앞에서' '고향 가까운 주막에 들러'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5연에서 '예제로 떠도는 장꾼들이여! / 상고하며 오가는 길에 / 흑여나 보셨나이까.'라며 <u>주막에 들른 장꾼들에게 고향의 소식을 묻고 있음</u> 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u>화자가 '고향을 앞에 두고도 고향 근처 주막에 머물고 있'다는 선지를 옳다고 해석</u> 할 수 있는 것입니다.
Q 10-3	'진종일 / 나룻가에 서성거리다'라는 구절을 통해 <u>화자가 떠돌아다니는 처지</u> 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나요? (p.22 4-㉔)
A 10-3	<u>'진종일 / 나룻가에 서성거리다'라는 구절은 화자가 그 날 하루 종일 나룻가 주변에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u> 입니다. 이는 그 날 화자가 '나룻가'라는 공간에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지, 화자의 삶 자체가 '떠돌이'임을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이 구절이 화자가 계속해서 떠돌아다니는 처지에 처해 있음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이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㉔번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b>[현대]</b> 11. 이청준 <소문의 벽>	
Q 11-1	(중략) 이후 부분은 <u>과거의 내용</u> 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 이것은 <u>회상</u> 인가요, <u>역행적 구성</u> 인가요? (p.54)
A 11-1	중략 이후의 내용이 전부 과거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며, <u>'박준의 신문기사 인터뷰' 부분의 내용이 과거의 내용을 담고</u> 있습니다. 문단의 첫머리에 '—(줄표)'가 나타난 부분은 박준의 신문기사 인터뷰에서 <u>박준이 말하는 부분</u> 으로, 인터뷰 속의 '나'는 박준이며, 그 외에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에서의 '나'는 중략 이전의 '나'와 동일 인물입니다. 즉 <u>소설의 서술자는 중략 이전이나 이후 모두 '나'로 동일하며, '박준의 인터뷰 내용'은 '나'가 과거의 일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므로 회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u> 또한 시간의 흐름이 거꾸로 제시된 것 또한 아니므로 역행적 구성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u>'박준의 인터뷰' 부분은 서술자인 '나'가 읽은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옮겨 온 것으로, 박준의 과거 이야기가 담겨 있는 장면이 제시된 것으로 볼 수</u> 있겠습니다.
Q 11-2	<u>'역행'과 '회상'</u> 이라는 개념은 다른가요? 역행적 구조를 이야기할 때 회상이 등장하는데, 분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11-2	역행과 회상은 구분해야 합니다. <u>'회상'이란 현재의 장면에서 등장인물이 자신의 과거에 대해 떠올리는 것을 의미</u> 합니다. 이는 단순한 한 문장으로 짧게 과거를 가지고 오는 단순 회사일 수도 있고, 새로운 과거 장면이 현재 장면 뒤에 삽입되는 과거 장면의 제시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반면 <u>'역행적 구조'란, 시간의 순차적인 흐름을 따르지 않은 장면 구성을 말하는 것</u> 입니다. 만일 현재의 장면에서 회상의 장치로 '과거 장면'이 제시되어 과거의 등장인물, 공간적 배경에서 대화가 진행된

	다면 이것은 역행적 구조를 가진 소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상과 역행적 구조는 서로 다른 개념임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Q 11-3	<u>‘서사적 기능’이 무엇인가요? (p.55, 10번)</u>
A 11-3	<p>해당 문제는 [A]의 서사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서사’는 ‘이야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u>[A]가 이야기의 전개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u>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p> <p>[A]는 ‘박준’의 인터뷰 기사 내용으로 <u>‘박준’이 유년 시절 느꼈던 전깃불의 공포에 대해서 언급</u>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공포를 소설을 쓰거나 인터뷰를 할 때 느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박준’이 왜 전깃불을 보고 발작을 일으키는지, 왜 어둠을 싫어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p> <p>따라서 <u>[A]는 주인공인 ‘박준’의 두 경험(어렸을 때의 경험, 소설을 쓸 때의 경험)을 연결하면서 ‘박준’이 어둠을 싫어하며 전깃불을 보고 발작을 일으키는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단서를 주는 것</u>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p>
Q 11-4	<u>‘어머니’가 대답을 잘못하면 ‘지독한 복수’를 당할 것이 뻔하다고 했고, 그 ‘지독한 복수’는 아들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행위이므로 이 때문에 ‘어머니’의 입장이 ‘절망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p.55 9-④)</u>
A11-4	<p>어머니의 입장이 절망적이었던 이유는 ‘상대방이 어느 쪽인지 정체를 모른 채 대답을 해야’했기 때문입니다. 즉, <u>자신이 대답을 잘못하면 지독한 복수를 당하게 될 것이 뻔한 사실</u>이었기 때문이지, 이 내용이 ‘아들의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괴감(스스로 부끄러워하는 마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p> <p>다시 말해서, <u>어머니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상황이 ‘아들의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상황과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로 인해 ‘자괴감’이 들었을 것이라고 확장하여 해석하기 힘든 것</u>입니다.</p> <p>또한 확대 해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④번 선지에서는 이미 어머니가 ‘아들의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절망적인 입장을 가진 순간에 아들의 안전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는 아니었으므로, 이에 따라서도 해당 내용이 틀렸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p>
[현대]	12. 박태원 <천변풍경>
Q 12-1	<u>‘시골서 영리했다’는 서술은 과거와 현재의 대비나 역순행적 구성이 아닌가요? (p.59 1-④)</u>
A 12-1	<p>해당 부분을 과거와 현대의 대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u>시골에서 그렇게 불릴 만큼 소년은 원래 똑똑한 편인데 낮선 도시에 와서 익숙하지 않은 풍경을 보고 신기해하는 모습</u>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과거의 상황과 현재 상황이 대비를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p> <p>선지에서 언급된 입체적 서술은 특정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의 구성상의 문제입니다. 작품이 시간 순서대로 진행되지 않고 역순행적 구조를 취하거나 액자식 구조일 때 입체적 구성이라고 하는데 제시된 지문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으므로</p>

	입체적 구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Q 12-2	<u>‘중략’ 이전은 과거 이야기고 중략 이후는 창수가 커서 도시로 온 것으로 보아 현재로 볼 수 없나요? (p.59 1-④)</u>
A 12-2	<u>(중략) 이전과 이후를 보면 창수는 똑같이 ‘소년’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u> 중략 이전의 ‘소년은 한길 한복판을 거쳐 거의 설 사이 없이 달리는 전체에,’ 부분과 중략 이후의 ‘소년은 그러한 것에도 쉽사리 붉어지는 제 얼굴을 아무렇게도 하는 수 없이,’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u>이 지문은 시간 순서대로 서술되어 있으며, ‘중략’ 부분에는 ‘아이-어른’과 같이 과거와 현재를 명확히 구분할 정도의 시간 지연이 존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u> 즉, 도시를 접하고 있는 창수의 심리를 시간 순서대로 서술하고 있을 뿐이므로 과거와 현재의 대비가 나타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Q 12-3	<u>4번 문제 ②번에서 말하는 ‘밤낮 본다면 물리고 만다’라는 말을 창수가 한 의도를 모르겠어요. (p.59 4-②)</u>
A 12-3	‘암만 좋은 구경이래두 밤낮 본다면 물리고 만다’라는 문장에서, ‘물리고’의 기본형인 ‘물리다’는 ‘다시 대하기 싫을 만큼 몹시 싫증이 나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단어의 의미를 토대로 볼 때, <u>‘밤낮 본다면 물리고 만다’라는 문장은, 좋은 구경이라도 밤낮없이 본다면 싫증이 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u> 하지만 이는 도시의 풍경을 계속 보면 싫증이 난다는 의미일 뿐, <u>선지에서 말하는 ‘도시 문명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모습’과 연관지어 볼 때, 어떠한 비판적 태도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u> ‘비판적 태도’는 어떠한 대상에 대해 옳고 그름,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암만 좋은 구경이래두 밤낮 본다면 물리고 만다’에서 <u>서울의 좋은 구경에 대해 옳고 그름이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태도가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u> 입니다. 또한 제시된 지문에서는 해당 문장에 뒤이어 ‘화신상, 전차, 승강기’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에서 구경할 것이 많음을 드러내며, 이 부분을 통해 도시에 대한 창수의 기대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앞뒤의 맥락을 고려할 때, 해당 부분은 <u>비판적인 시선보다는 도시라는 새로운 공간에 대한 창수의 기대감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u> 있겠습니다.
[현대]	13. 송수권 <지리산 삐꾸새>
Q13	마지막 연의 ‘지리산 하에서 울던 한 마리 삐꾸새 울음이 / 이승의 서러운 맨 마지막 빛깔로 남아 / 이 세석 철쭉꽃밭을 다 태우는 것을 보았다.’라는 부분은 울음이 빛깔로 남았다는 것이니 <u>마지막 빛깔은 울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색채어가 아니지 않나요?</u> (p.26)
A13	‘철쭉꽃밭을 다 태우는 것을 보았다’라는 부분은, ‘한 마리 삐꾸새 울음이 서러운 빛깔로 남아’ 일어난 현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u>시적 화자는 삐꾸새의 ‘서러움’이라는 감정에 동화되어, 철쭉꽃의 붉은 빛깔 또한 설움을 불러일으킨다는 의미로 판단할 수</u> 있습니다.

	<p>마지막 연의 경우 ‘철쭉꽃밭’의 ‘철쭉’이란 뼈꼭새가 한과 설움의 눈물을 다 흘리어 섬진강물로 다 흘려보낸 뒤에야 피는 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u>철쭉꽃은 한과 설움을 수용하고 정화, 승화하는 대상</u>이라 볼 수 있습니다.</p> <p>결과적으로 <u>뼈꼭새 울음으로 나타나는 한과 설움을 시각적으로 형상화 한 것이 철쭉꽃</u>이라는 점에서 해당 구절(철쭉꽃밭을 다 태우는 것을 보았다)은 <u>철쭉꽃의 색채가 서러운 빛깔로 남았다고</u> 판단할 수 있습니다.</p>
[고전]	14. <숙향전>
Q 14-1	<u>‘연약한 몸이 큰칼 쓰고 여러 사람에게 붙들려 가니 반은 죽은 사람이라.’</u> 부분을 외양묘사로 볼 수 없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p.69 5-⑤)
A 14-1	<p>‘묘사’는 <u>‘어떠한 대상이나 풍경을 그림을 그리듯이 표현하는 것’</u>입니다. <u>큰 칼을 썼다는 것은 그 자체로 현재 상황을 서술하는 것일 뿐</u>입니다.</p> <p>만일 묘사를 한다면 ‘연약한 몸이 금방이라도 부러져 버리는 유리처럼 가벼워 보였다. 금방 깨질 것 같은 유리에 무거운 바윗덩이와 같이 큰 칼을 씌워놓은 것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한없이 위태로워 보이게 하였다. 그의 얼굴은 백짓장처럼 창백하여 위태로움을 더했다.’ 정도로 그 대상의 외양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p>
Q 14-2	<u>‘김전’이 ‘원님’과 동일 인물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u> (p.69, 4-④)
A 14-2	<p>㉞에서 ‘원님’은 ‘상서 명을 거역하지 못하여 어젯밤에 숙향을 잡아다 죽이려고 큰 매로 치라 하되 집장 사령이 매를 들지 못하여 죽이지 못하였사오나’ ‘오늘 죽이려 하옵고 큰 칼을 씌워 옥에 가두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u>‘원님’이 ‘숙향’을 죽이려 옥에 가둔 사람</u>임을 알 수 있습니다.</p> <p>아래 부분으로 내려와 ‘이튿날 김전이 숙향을 올리라 하니’라는 구절은 <u>이튿날 ‘김전’이 ‘숙향’을 자신에게 불러오라고 했음</u>을 의미합니다. 현재 <u>‘숙향’은 옥에 갇혀 있는 처지이므로, 그녀를 옥에서 빼낼 수 있는 인물은 ‘원님’</u>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전’이 ‘원님’이라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p> <p>또한 지문 마지막 부분에 ‘김전의 부인’이 ‘김전’에게 ‘숙향’을 아직 죽이지 말라 간청하니, <u>‘김전’이 ‘숙향을 도로 하옥(옥에 가두다)하라 하고,’라 제시</u>되어 있습니다. 앞서 <u>‘숙향’을 옥에 가둘 수 있는 인물은 ‘원님’</u>이었고, ‘김전’이 ‘숙향’을 옥에 다시 가두라고 한 것을 통해 <u>서도 둘이 동일 인물</u>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p>
Q 14-3	<u>‘산은 첩첩하고 물은 중중한’</u> 것과, ‘잠자려는 새들이 숲으로 들어가’는 것은 단순한 <u>시공간적 배경 제시</u> 아닌가요? 이 내용이 왜 <u>‘숙향’이 처한 힘든 상황</u> 을 나타내는 근거가 되나요? (p.69 5-①)
A 14-3	㉞에서 ‘숙향’이 있는 <u>공간적 배경은 ‘산이 첩첩하고 물은 중중’하므로, 깊은 산속이며 다른 곳으로 쉽게 이동할 수 없는 상황</u> 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u>‘잠자려는 새들은 숲으로 들어’갔다고 한 것을 통해 시간적 배경은 해가 지고 어두워진 저녁 혹은 밤이라고 짐작</u> 할 수

	<p>있습니다.</p> <p>즉, '숙향'은 날도 어두워지고 사방이 산과 물로 막혀 고요한 산 한 가운데서 갈 곳 없이 막막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u>시공간적 배경은 '숙향'이 '갈 데 없어서 앉아서 울고 있'는 힘든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u></p>
[현대]	15. 임철우 <아버지의 땅>
Q15-1	<p>'소총'과 '까마귀'가 상징적 소재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P.46)</p>
A15-1	<p>어떤 소재의 상징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소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에서 파악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p> <p>임철우의 &lt;아버지의 땅&gt;에서의 '<u>소총'은 전쟁, 혹은 대립, 민족의 비극 등을 의미하는 상징</u>으로 쓰이고 있고, '<u>까마귀'는 불길함, 불안, 어두운 기억 등의 상징</u>으로 쓰이고 있습니다.</p> <p>이는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파악이 가능한데, 구체적으로는 주인공이 느끼는 감각 안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눈이 '구물거리는 검은 세 떼'를 지워 버린다는 표현이 까마귀의 상징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p>
Q15-2	<p>(중략) 이후 부분에서 '<u>나'가 아버지를 '증오스런 사내'라고 표현하는 것을 통하여 '나'가 아버지로 인해 암울한 심리를 가졌음을 알 수 있고, 그 암울한 심리가 ㉠에서 강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u> (p.47 8-㉠)</p>
A15-2	<p>8번 문제의 ㉠번 선지에서 '아버지로 인한 '나'의 암울한 심리를 강화한다.'라고 했으므로, 먼저 <u>㉠ 이전의 지문 내용 중 아버지로 인해 '나'가 암울한 심리를 갖게 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u>해야 합니다.</p> <p>(중략) 이후 부분에서 '<u>나'는 아버지를 '청년이 된 지금까지도 가슴을 새까맣게 그을려 놓으며 깊숙한 상흔으로만 짙혀져 있을 뿐인 그 증오스런 사내'라 표현</u>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나'가 아버지로 인해 암울한 심리를 갖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p> <p>그런데 그러한 심리가 <u>㉠ 부분에서 '강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손발이 묶인 채 땅 밑에 누워 있는 모습을 상상하고는 있지만, 그것을 상상하며 암울해 한다기보다는 아버지에 대한 '연민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음</u>을 알 수 있습니다. ㉠ 장면은 유해를 정성스럽게 수습하는 노인의 행위를 보며 이념 간의 대립과 갈등을 넘어서는 인간애를 느끼게 된 '나'가 그동안 증오했던 아버지를 떠올리며 그를 이해하고 용서하게 되는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p>
[고전]	16. <열녀춘향수절가>
Q16	<p>'선산발치'가 춘향의 한이 풀어지는 장소라는데, '수절원사 춘향지묘'라는 말은 절개를 지키다 원통하게 죽었다는 말 아닌가요? '<u>원통함'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한이 풀어지는 장소라고 볼 수 있나요?</u>(p.79 12-㉣)</p>
A16	<p><u>춘향은 '선산발치'에 묻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u> 구체적으로 '선산발치에 묻어 주고'라는 발화를 통해 드러나지요. 또한, '신원이나 하여 달라'라고 말하여 생전에 쌓인 원한을 사후에라도 풀고자 하는 소망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이 '선산발치'에 묻히는 것으로</p>

	<p>구체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p> <p><u>‘선산발치’는 조상의 무덤으로, 선산발치에 묻어주는 것은 그 가문의 정실부인으로 인정받아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u> 이는 일개 첩의 신분이었던 것이 아닌, 정실부인이라는 신분 상승을 의미하지요. <u>‘기생’이었던 춘향의 생전의 한을 사후에 ‘선산발치’에 묻게 되는 것은 한을 푸는 것이며, 따라서 ‘선산발치’가 한이 풀어지는 장소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u></p>
[현대]	17. 오규원 <살아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Q17	‘바람’은 긍정적 이미지인가요? 부정적 이미지인가요? (p.18 3-③)
A17	<p><u>‘바람’은 &lt;보기&gt;에서 특별하게 해석의 단초가 주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문에 쓰인 그대로, 즉 ‘갈대를 흔들리게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갈대는 바람에 의해 흔들리면서 슬픔, 고독, 고통을 느끼지만 이를 통해 살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바람’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는 특별한 표현이나 조건이 없다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u></p> <p>선생님께서서는 ‘자유’나 ‘바람’이라는 시어에 대한 고정된 이미지로만 문제를 푸는 것이 위험하다고 말씀하셨으며, <u>&lt;보기&gt;에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 선지의 표현을 이해하고 풀어나가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u> ‘바람’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보다는 이 선지를 틀렸다고 판단하는 방법(과정)에 초점을 맞춰 학습하길 권해드립니다.</p>
[고전]	18. 윤선도 <만흥>
Q18	‘시간의 경과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는, <제2수>의 ‘보리밥과 찻나물을 알맞게 먹은 뒤에 / 바위 끝 물가에서 실컷 노니노라’와 같이, ‘~한 후, ~한다’는 시에서 시간의 경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u>시간의 경과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p.94 1번)</u>
A18	<p><u>‘시상의 전개’는 ‘시에 나타난 사상이나 감정이 전개되는 방향’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상이 전개된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나 감정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u></p> <p>이러한 부분을 시의 전반적인 흐름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요. 즉 <u>시상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면서 이에 따라 시적 화자가 느끼는 감정이나 태도가 변화가 일어날 경우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u></p> <p>그런데 &lt;만흥&gt;의 경우 &lt;제1수&gt;부터 &lt;제6수&gt;까지 사상이나 감정의 흐름을 결정하는 것이 ‘시간의 경과’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리밥 찻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 바위 끝 물가에서 실컷 노니노라’라는 부분은 &lt;제2수&gt;의 부분에 지나지 않지요.</p>
[고전]	19. 원천석 <홍망이 유수하니~>
Q19	‘비유적 시어를 활용’하였다고 선지에 나타나 있는데, 그 근거가 되는 시어인 <u>‘추초’와 ‘목적’은 화자가 눈앞에서 보고 있는 실재하는 대상인데 ‘비유적 시어’라 볼 수 있나요? (p.108 2번)</u>
A19	<p>그렇습니다. 시적 화자는 망한 나라를 바라보며 망국의 슬픔과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u>‘추초’와 ‘목적’은 시적 화자가 실제로 보고 있는 대상</u>이라 볼 수 있습니다.</p>

	<p>그런데 ‘추초’의 경우 ‘가을의 풀’이라는 뜻으로 봄과 여름의 품과 달리 시들어가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u>이미 망해버린 나라인 ‘망국’과 의미가 연결되어 있으므로 비유적 시어</u>라고 판단할 수 있지요.</p> <p>‘목적’은 목동이 부는 피리 소리로, 구슬픈 피리의 소리를 통해 만월대를 보는 시적 화자의 슬픔과 무상감을 더하고 있으며, <u>오백 년 왕업이 고작 목동의 피리 소리에 담겨 불리는 초라한 상황이 망국의 한과 무상감</u>을 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초’와 ‘목적’은 비유적 시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p>
[현대]	20. 김광규 <나뭇잎 하나>
Q 20-1	<u>4연이 왜 도치인가요? (p.24)</u>
A 20-1	<p>4연을 보면 ‘그 많은 나뭇잎들 / 사라지는 것을 보여 주면서’로 끝나고 있습니다. ‘나뭇잎들이 무엇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지요. 맥락을 가지고 본다면 <u>‘나뭇잎’이 ‘저마다 한 개씩 돌아나 여럿이 모여서 한여름 살고 마침내 저마다 한 개씩 떨어져 그 많은 나뭇잎들 사라지는 것을 보여 주면서’ ‘떨어졌다’라고 설명을 해야 합니다.</u></p> <p>이는 <u>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을 인식하게 된 3연과 연결</u>이 됩니다. 즉, 눈발이 드문드문 흠날리던 날, 대추나무 가지 끝에 매달려 있던 나뭇잎 하나가 ‘저마다 한 개씩 돌아나 ~ 사라지는 것을 보여주면서’ 문득 혼자서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u>따라서 4연의 내용이 3연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점에서 ‘도치’가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u>입니다.</p>
Q 20-2	<u>‘저마다 한 개씩’이 ‘근원적 고독’을 나타내는 이유는 무엇이며, ‘세상과 화합할 수 없는 존재의 고뇌’는 왜 ‘개인적 고뇌’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p.25 11-④)</u>
A 20-2	<p>이 시에서 <u>화자는 나뭇잎 하나가 혼자 떨어지는 모습을 통해 깨달음을 얻습니다.</u> 누구나 ‘저마다 한 개씩 돌아나’고, ‘마침내 저마다 한 개씩 떨어져’ 사라진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이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탄생과 죽음을 나뭇잎의 모습에 빗대어 나타낸 것입니다. 이렇게 <u>인간은 나뭇잎과 마찬가지로 홀로 세상에 태어나 홀로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마다 한 개씩’이라는 시구를 반복하여 존재의 근원적 고독, 다시 말해 모든 존재는 외롭고 고독하다는 것을 표현</u>하고 있습니다.</p> <p>그러나 ④번 선지의 ‘세상과 화합할 수 없는 존재의 고뇌’는 모든 존재의 고뇌(보편적으로 모두가 생각하는 고뇌)에 해당하지 않고 개인의 고뇌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이는 시에 나타나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모두가 ‘세상과 화합할 수 없’다는 것에 고뇌를 느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p>
[현대]	21. 황석영 <가객>
Q 21-1	‘수추’의 외양을 보고 ‘비렁뱅이 가객’이라고 말하거나, ‘꼬락서니가 내 사촌이 틀림없었다’로 서술하는 것을 보아, 이미 <u>작품 외적인 부</u>

	<p><u>분에 의해 서술자인 '나'의 관심이 '수추'에게 끌린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틀린 선지로 볼 수 있지 않나요? (p.51 4-①)</u></p>
A 21-1	<p>'비렁뱅이 가객'이라 '수추'를 서술하고 있으며, '꼬락서니가 내 사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문고를 메었으니 노래를 할 것이라 수추의 외양을 '나'가 보고 서술을 하는 것이지요.</p> <p>그러나 <u>이러한 외양은 '나'를 자극하지는 못합니다. 이는 '다시 쪼그리고 앉아 싸락눈이 떨어져 녹아 사라지는 모습'을 보기 시작한 것</u>에서 알 수 있습니다. <u>잠깐 비렁뱅이 가객을 관찰하였으나 흥미가 떨어지게 된 것이지요.</u></p> <p>그러나 이러한 <u>관심은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증폭됩니다.</u> 이상한 가락이 '나'에게 깊숙하게 꽂혀 다리 위로 올라가게 된 것으로 관심이 적극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u>수추의 외모가 아닌 수추의 노래 자체에 자극을 받아 관심을 보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①번이 적절한 선지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u></p>
Q 21-2	<p><u>'그(수추)'가 부른 두 번째 노래는 '수추'의 얼굴을 저자 사람들이 본 뒤라 반응이 좋지 않았는데, 어떻게 '작품(노래)'을 '예술가(수추)와 연계하여 '수용'하였다고 볼 수 있나요? '수용'했는데 왜 저자 사람들의 반응은 좋지 않은 건가요? (p.51, 4-③)</u></p>
A 21-2	<p><u>'수추'의 작품(노래)을 예술가(수추)와 연계하여 수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긍정적 인식뿐이라고 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u> 선지에서 '작품을 예술가와 연계하여 수용'했다는 말은 '작품'을 작품 자체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u>'예술가와 연관 지어 이해하여 '예술가'가 누구인지, 어떤 모습인지가 작품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u> 사람들은 '수추'의 얼굴을 보기 전 '작품(노래)'만 보았을 때는 '사람을 못 견디게 하는 소리로구나. 저런 소리는 이 저자가 생겨난 이래로 처음 들었다.'라며 그 음률에 감탄합니다. 그런데 '수추(예술가)'의 얼굴을 본 후에는 '가락의 신묘한 아름다움은 그 추한 얼굴에 씩씩 사그라져 더 이상 노래에 감동받지 못하고 오히려 불쾌감을 느낍니다. 이는 <u>저자 사람들이 '작품(노래)'과 '예술가(수추)'를 연계하여 수용하였기 때문이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u></p>
Q 21-3	<p><u>해당 작품은 '1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한 작품으로 나타나 있는데, <u>중략 이후 (나)에서 '평화로운 잠을 잤다', '겸손하였다' 등으로 나타나는 수추의 행동 묘사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p.50)</u></u></p>
A 21-3	<p>&lt;가객&gt;의 경우 (가)에서 '나'라는 서술자가 나타나므로 1인칭 시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나'는 '수추'라는 가객, 인물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므로 '나'의 정서가 나타나지만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서술의 큰 초점이나 사건의 핵심 인물은 '나'가 아닌 '수추'로 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p> <p>또한 <u>(나)의 내용을 통해 '그'라고 서술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수추'라는 인물에 대해 자신의 얼굴을 자신이 미워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는 점에서 1인칭 관찰자 시점이 아닌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바뀐 것이라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u> 즉 (나)에서 나타난 '그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그는 그 얼굴을 미워하였다.'</p>

	‘따라서 시냇물도 미워하였다’ 등의 내용은 전지적 작가 시점을 통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21-4	(가)에 제시된 인물은 ‘수추’보다 ‘나’인데, ‘나’를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p.51 2-㉓)
A 21-4	<p>선지에서 특정 인물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와 (나)에 모두 등장하는 인물을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선지에서도 ‘내재되어 있는’이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맥락을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p> <p>(가)는 수추가 아닌 타인(‘나’)의 시각에서 수추의 외모와 노래 사이의 괴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나)에 나오는 ‘노래’에 집착을 하며 괴로워하는 수추의 모습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p> <p>또한, (가)에서는 ‘수추가 고개를 푹 숙여 머리가 없는 자처럼 땅속에다 소리를 심고 있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수추가 자신의 외모를 드러내기 싫어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가)에서도 수추는 외모에 따른 내적 갈등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p>
[고전]	22. 이조년 <이화에 월백하고~>
Q22	‘자규’는 봄의 정서를 알리가 없다는데 왜 ‘이화’에서 환기된 정서가 ‘자규’에서 강화되는 건가요? (p.106)
A22	<p>화자는 지금 배꽃이 핀 달밤에 은하수를 보며 두견새 우는 소리를 들으며 봄날의 애상감에 젖어 있는 상태입니다. 화자가 중장에서 두견새가 알리가 있겠냐마는 이라고 하는 것은 두견새가 봄날의 정서, 즉 이 봄날에 화자가 느끼는 애상감을 알고서 우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의미입니다.</p> <p>그런데 화자는 이 두견새 우는 소리로 인해 정이 넘치는 것도 병인 듯하다고 느낄 정도로 애상감에 깊게 빠져들게 됩니다. 따라서 화자는 두견새 울음소리를 들으며 더 애상적 정서를 느낀다고 볼 수 있습니다.</p>
[고전]	23. 이항 <도산십이곡>
Q 23-1	‘교교백구’는 어구 풀이에 ‘현자’라 해석되어 있는데, 왜 화자가 비판하는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p.98, 5번)
A 23-1	<p>&lt;제5곡&gt;에서 ‘갈머기’는 자연 풍경을 구성하고 있는 한 대상으로, 자연에 동화되어 욕심 없이 살고자 하는 화자의 심정이 투영된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행에 ‘엇디다 교교백구는 멀리 마음 하는고’라며 ‘어찌하여 현자는 멀리 마음을 두는가’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멀리 마음’ 두느냐고 했으므로, 이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자연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느냐는 물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에서 ‘교교백구(현자)’는 자연을 즐기지 못하고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화자와 반대되는 삶을 지향하는 존재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교백구(현자)’는 화자가 비판하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p>
Q 23-2	공간을 묘사하면 공간에 입체감이 당연히 부각되는 건가요? (p.98, 3번)
A	입체감이라는 것은 삼차원의 공간적 부피를 가진 물체를 보는 것과

23-2	<p>같은 느낌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간의 모습을 설명, 또는 묘사할 때 마치 눈앞에 그 공간이 부피감을 가지고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표현될 때 ‘입체감’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u>공감각적 심상이 사용되었는데, 마치 그 물체가 눈앞에 있는 것처럼 부피감이 느껴진다면 입체감이 부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u></p> <p>&lt;도산십이곡&gt;의 5수에서는 산 ‘앞’의 대나 그 ‘아래’에 흐르는 물 등의 표현, 4수에서는 단순히 자연물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난초가 ‘깊은’ 골짜기에 피었고 흰 구름이 ‘산마루(높음)’에 걸림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u>공간의 입체감</u>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공간을 묘사한다고 해서 입체감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고, 입체감이 드러나려면 높고 낮음, 깊고 얇음, 멀고 가까움 등과 관련된 표현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p>
[현대]	24. 박남수 <아침 이미지1>
Q24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 낳고, 꽃을 낳는다.’고 했으므로 <u>사물들이 새로 태어난 것이라 볼 수 있지 않나요? (p.12 1-③)</u>
A24	<p>‘새, 돌, 꽃’을 포괄하는 시어가 4행의 ‘물상’이므로,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 낳고, 꽃을 낳는다.’와 ‘어둠은 온갖 물상을 돌려주지만’이라는 구절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u>어둠이 물상들을 만들었다(혹은 태어나게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둠’이 만물을 품고 있다가 세상에 내보이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u>입니다. 다시 말해, 어둠으로 감추었던(보이지 않게 했던) 물상을 ‘날아’서 세상에 보이게끔 했다는 의미입니다.</p>
[현대]	25. 오정희 <옛우물>
Q25	‘경계 상황에 놓인’, ‘경계에 선 인간은 혼란을 겪기도 한다.’를 바탕으로 <u>‘나’를 ‘혼란에 놓인 인물’이라고 보면 안 되나요? (p.45 3번)</u>
A25	<p>산문의 경우 해당 작품의 일부분만이 지문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lt;보기&gt;의 내용이 ‘모두’ 지문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lt;보기&gt;가 소설 내용과 달리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 적은 것이라면, 지문과 &lt;보기&gt;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lt;보기&gt;의 모든 내용을 역지로 끌어와서 지문에 맞춰보고자 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p> <p>해당 문제에서 &lt;보기&gt;의 첫 문단은 ‘일반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서 ‘옛우물에서는~’과 같이 소설에 대한 내용을 언급함을 표시하고 있지요.</p> <p><u>‘옛우물에서는 경계 상황에 놓인 중년 여성 인물이~’라는 표현에서 ‘경계’는 ‘일상적 경험 세계와 현실 너머의 상상의 세계’ 사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경계’가 나왔다고 해서 ‘경계에 선 인간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도 한다.’라는 문장과 연결시킬 수는 없는 것이지요.</u></p> <p>‘~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정체성을 탐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문장의 의미까지 꼼꼼히 보고, 아직 ‘정체성을 탐색’하는 시점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지요.</p> <p>또한 이 여성은 이미 자신의 손으로 질서 지워지는 것들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의 모습을 즐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를 ‘혼란’을 겪고 있는 인물이라고는 보기는 어렵겠습니다.</p>
[고전]	26. <님이 오마 하거늘~>

Q26	<u>‘즌 디 마른 디 갈희지말고’라는 구절에서 ‘즌 디’와 ‘마른 디’는 대조적 소재 아닌가요? (p.110 5번)</u>
A26	‘즌 디’와 ‘마른 디’는 사전적 의미로 판단하면 ‘대조’되는 단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품을 보면, ‘즌 디 마른 디 갈희지말고(진 곳 마른 곳을 가리지 않고)’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즉 이는 <u>화자가 ‘즌 디’나 ‘마른 디’나 상관없이 ‘님’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한 시어이므로, 작품 속에서 이들이 서로 대조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u>
[고전]	27. <소대성전>
Q27	<u>‘승상’이 ‘아이’에게 ‘깨우며 물어 왈’이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u>승상이 곤히 잠든 아이를 깨운 것</u> 아닌가요? (p.73 2-①)</u>
A27	<u>[A] 부분에서 ‘(승상이) 깨우지 않으시고, 옷에 무수한 이를 잡아 죽이며 잠 깨기를 기다리더니’라고 나타난 것으로 보아, 승상이 아이의 잠을 깨우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u> 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아이가 돌아누우며 탄식 왈’을 통해 아이가 그러한 상황에서 스스로 깨어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후 아이가 승상에게 ‘남의 단잠을 깨워 무슨 말을 묻고자 하는가?’라고 묻고 있기는 하나, 앞부분의 내용을 통해 승상이 아이를 곧바로 깨운 것이 아니라 이를 잡으며 잠시 기다려 준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곤히 잠든 아이를 깨우지 않고 기다린 모습’으로도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현대]	28. 김동리 <역마>
Q 28-1	<u>계연의 목소리와 삐꾸기 울음은 서로 대조된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p.43, 7-②)</u>
A 28-1	<u>대조란, 둘 이상의 대상이나 사물이 어떠한 속성에 근거하여 반대되는 성질을 가짐을 드러내는 표현 방법</u> 입니다. 김동리 <역마>에서 <u>삐꾸기가 우는 것 자체를 기쁘거나 슬픈 것으로 간주해 계연의 목소리와 대조를 시키기는 어렵습니다.</u> 왜냐하면, 지문에 등장하는 삐꾸기 울음소리는 인물과의 대조를 위한 소재가 아니라 <u>평화로운 분위기를 조성</u> 하는 데에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삐꾸기 울음소리가 비극성을 강화시키는 것은 삐꾸기가 우는 그 분위기(버들나무가 햇빛에 젖어 있는 풍경)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삐꾸기가 슬픈지, 기쁜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울음소리로 인해 조성되는 분위기는 비극성을 강화시킨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Q 28-2	<u>‘옛장수가 되’는 것은 ‘성기’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니, 이는 &lt;보기&gt;의 ㉠에 따라 ‘주체적으로 자기 삶의 방향을 결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u> 아닌가요? (p.43 8-②)
A 28-2	이 작품의 제목인 <역마>는 ‘늘 분주하게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게 된 액운’을 뜻하는 ‘역마살’에서 따온 말입니다. 주인공인 ‘성기’는 역마살이 낀 인물로, 떠돌이가 될 운명을 가지고 있어서 [앞부분의 줄거리]에도 나와 있듯이 어머니인 ‘옥화’는 역마살을 타고난 아들을 정착시키기 위해 체 장수 영감의 딸 ‘계연’과 맺어주려 합니다. 그런데 ‘그해 아직 봄이 오기 전, ~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있었다.’라는 부분에 나와 있듯이 ‘계연’은 ‘성기’의 어머니인 ‘옥화’와 자매 사이였음이

	<p>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성기'는 '계연'과 이루어질 수 없으며, 정착할 수 없는 운명이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u>'옥화'는 충격과 상처를 받은 '성기'에게 본래 가지고 있던 생각대로 강원도로 떠났냐고 물으며 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치유할 것을 권유합니다.</u></p> <p>즉 <u>'성기'가 강원도로 떠난다는 것은 집을 떠난다는 것이므로, '역마살'을 타고난 자신의 운명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u> 따라서 ㉠에 따라 '옛장수가 되어 떠나는 성기의 행동'은 '세계와 조화를 이루는 행동'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운명에 순응하는 모습은, 역마살이라는 운명에 주체적으로 저항하며 자기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경우와 거리가 있습니다.</p>
	<p>29. 작자 미상 &lt;유충렬전&gt;</p>
Q29	<p>'천자'가 '역적'을 말을 듣고 '충신'을 귀양 보냈다는 설명만 읽고, 이 경우의 <u>'충신'이 '유심'인지, '강희주'인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p.75 7-㉡)</u></p>
A29	<p>만약 7번 문제에 &lt;보기&gt;가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선지 ㉡번의 '천자가 역적의 말을 듣고 충신을 귀양 보낸 것'의 '충신'이 '유심'을 지칭하는 것인지 '강희주'를 지칭하는 것인지 명확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p> <p>하지만 이를 방지하고자 &lt;보기&gt;에서 <u>유충렬의 두 번째 시련은 '충신인 장인 강희주와 간신의 정치적 갈등이 계기가 된다.'</u>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선지 ㉡번에서는 유충렬의 '두 번째 시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므로, 이 선지에서 말하는 '충신'이란 '강희주'임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즉 <u>&lt;보기&gt;의 내용을 기반으로 했을 때 유충렬의 '두 번째 시련'은 '강희주'와 관련된 것이고, 선지 ㉡번에 제시된 내용이 '강희주'에게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라는 근거는 없으므로</u> 이는 옳은 선지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p>
	<p>30. 이근삼 &lt;원고지&gt;</p>
Q30	<p><u>장남이 아니라 부모가 비판의 대상이지 않나요? (p.84)</u></p>
A30	<p>'밥 세끼도 못 먹이고'는 장남의 대사로, 부모라면 마땅히 경제적으로 자식들을 부양해야 한다는 장남의 생각이 드러나 있습니다. 따라서 <u>표면적으로는 비판의 주체는 '장남'이며, 비판의 대상은 '장남의 부모'로 볼 수 있습니다.</u></p> <p>그러나 지문을 읽어 나가면서, <u>장남이나 장녀가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인물로 부모의 의무만을 강조하는 양상으로 드러나면서, 이러한 부모의 의무만을 강조하는 대사를 토대로 극을 보는 관중들이 비판의 주체가 되어 장남과 장녀를 비판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u></p>
	<p>31. 정지용 &lt;인동차&gt;</p>
Q31	<p>작품의 <u>어떤 부분에서 실내의 분위기가 느껴진다고 볼 수 있나요? (p.8, 1-㉢)</u></p>
A31	<p>(노주인이) 풍설 소리에 '어떤 한 가지 일에만 마음을 골똘하게 쓰다.'라는 표현은, <u>노주인이 풍설을 눈으로 보거나 차가움을 느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u> 즉 <u>노주인이 풍설을 직접 맞고 있지는 않은 것이지요.</u> 차를 마시며 소리를 듣는다는 점에서도 풍설이 휘몰아치지 않는 공간 속에 위치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p>

	<p>풍설이 휘몰아치는 공간이라면 불을 피우기도, 무순이 파릇하게 돌아 있는 것도 보기 힘들며, 흙냄새 훈훈히 감도 서리는 것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u>노주인이 있는 공간으로서 '실내'라고 판단</u>할 수 있습니다.</p>
	<p>32. 이문열 &lt;금시조&gt;</p>
Q32	<p><u>만남과 헤어짐이 극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p.12-③)</u></p>
A32	<p>지문은 크게, '석담과 고죽'이 나오는 과거와 '고죽과 초헌'이 나오는 현재로 나눌 수 있습니다. <u>'석담과 고죽'은 스승과 제자로서 헤어짐을 보여줬다면, '고죽과 초헌'은 스승과 제자로서 만남을 보여 주고</u> 있습니다. 제자인 초헌의 모습에서 고죽은 과거 자신의 스승이었던 석담을 떠올리면서 과거에 석담과 겪었던 갈등(예술관의 차이)을 점점 해소해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u>만남과 헤어짐이 극적인 요소</u>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p>
	<p>33. 이이 &lt;고산구곡가&gt;</p>
Q33	<p><u>&lt;제2곡&gt;에서 시적 화자가 있는 공간이 '이 경치 좋은 곳'인 '승지'이므로 선지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자연'과 상충되지 않나요? (p.93 3번)</u></p>
A33	<p>'이상적'이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완전하다고 여겨지는. 또는 그런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u>&lt;제2곡&gt;의 내용을 보았을 때, 화자는 '이곡'의 아름다운 경치에 대해 이야기하며, 종장에서 '사람이 승지를 모르니 알게 한들 엇더리'라며 이러한 아름다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u></p> <p>이를 고려하였을 때, <u>화자가 바라보는 '승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풍경을 알리고 싶을 정도로 그에게 완전하다고 여겨지는 이상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u></p> <p>물론, 화자는 '자연' 환경 속에 물리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승지'라는 표현으로 묘사된 공간은 실재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공간이 모두에게 '승지'로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시적 화자가 자연 풍경을 보았을 때, 이 공간이 스스로에게 '이상적'으로 느껴져 마치 '승지'처럼 느낀 것이므로 이를 시적 화자의 주관에 따라 추상화된 상상의 풍경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p> <p>다시 말해서, <u>화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연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 의해 이 공간을 하나의 이상적인 풍경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u> 이러한 맥락에서 '승지'가 시적 화자인 작가가 꿈꾸는 이상적인 자연의 모습을 의미한다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p>